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예능 '넥스트 레전드', '평가전 올킬' 원태진 → '코리안 야말' 이은호! 베스트 15인 활약상!

2026. 3. 17.







쿠팡플레이 예능 <넥스트 레전드> 관련 이미지

쿠팡플레이 예능 <넥스트 레전드>가 대한민국 축구를 이끌 '베스트 15'을 확정된 가운데, 유럽 리그 진출의 가능성을 현실로 보여 주며 '축덕'은 물론 시청자 모두에게 극도의 긴장감과 기대감을 선사하고 있다.

쿠팡플레이 예능 <넥스트 레전드>는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유망주들이 치열한 경쟁을 통해 해외 진출의 기회를 얻게 되는 리얼 서바이벌.

<넥스트 레전드>의 주역인 베스트 15인은 최초 44명의 쟁쟁한 유망주 중 치열한 생존 게임을 뚫고 선발된 정예 멤버로, 이영표 감독과 가레스 베일 멘토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놀라운 성장을 이뤄냈다. 그 결과, 영국 명문 구단 '선덜랜드 AFC' 유소년 팀과의 평가전에서 2대 2 무승부를 기록하며 유럽 무대 가능성을 입증했다.

원태진, 임현석, 김은성, 이재형, 이호빈, 강동휘는 초반부터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며 각종 베스트 명단에 연속 포함된 선수들이다. 특히 '영재 발굴단' 출신 원태진은 선덜랜드전에서 선제골을 기록, 평가전 베스트를 '올킬'하는 맹활약을 펼쳤다. 브라질전에서 유일 득점을 기록한 김은성은 타고난 골 감각으로 내전에서도 선제골을 터뜨리며 돋보이는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재형은 "원발이 가레스 베일같다"는 평을 받았고, 이호빈은 베일로부터 "최고의 선수"라는 극찬을 받으며 핵심 전력으로 자리 잡았다.

반전의 드라마를 쓴 선수들의 서사도 주목받고 있다. 무소속의 설움을 딛고 본능적인 드리블로 '코리아 라민 야말'이라는 수식어를 얻은 이은호, '팀 영표'의 원픽으로 낙점된 이범성, 그리고 압도적 피지컬과 실력으로 두각을 나타낸 골키퍼 김찬영까지 각 포지션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정택현, 오창환, 이예준, 서현우, 노준형, 박건민은 위기 속에서도 급격한 성장을 이뤄내며 반전 서사를 완성한 선수들이다. '전교 1등' 사기캐 정택현은 탈락자 결정전에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고, 오창환은 '팀 베일'의 3대 0 승리를 안겨준 주인공이다. 와일드카드로 살아남은 이예준은 '내전 베스트 11'과 '토틸넘 베스트 3'에 연속 선정되며 대형 유망주로 떠올랐다.

패자부활전의 기적을 쓴 서현우와 노준형 역시 런던 현지에서 '선덜랜드 베스트 3'에 나란히 호명되며 역전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부상했다. 만장일치로 합류한 박건민 또한 평가전 득점까지 기록하며 '대기만성형' 플레이어의 저력을 보여줬다. 이처럼 15인의 유망주가 실전 경험을 통해 '레전드'로 거듭나는 과정은 단순한 서바이벌을 넘어 한국 축구의 찬란한 미래를 예고하고 있다.

베스트 15가 유럽 축구의 벽을 넘기 위해 한계에 도전하는 뜨거운 순간을 담은 <넥스트 레전드> 9화는 오는 3월 20일(금) 오후 4시에 공개된다.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